

특집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심상치 않은 신불교

영산불교 사상... 기존 불교계에
핵폭탄 되려나?

2000년 이상 정설로 내려온
불교 무아설의 해석 뒤집어
자재만현 큰스님

“無我輪廻 폐기, 영혼체 윤회론 주장”
새로운 실존적 불신관(佛身觀)..
부처님은 빛의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 법계 최초불..
구원실성은 사실

우리 불교계에 큰 태풍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찌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톤(giga: 10억배급 태풍이 될 지도 모르겠다. 아니 불교계를 넘어서 세계종교계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심각한 용어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다. ‘신불교’라는 용어 자체가 충격적이다. 기존의 불교계 내에서는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정도를 가지고 감히 ‘신불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종파를 설립하는 정도를 가지고도 ‘신불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2600여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부처님의 불교 외에 또 다른 불교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오해의 우려는 ‘영산불교’라는 신불교 교단의 이름에서 자연스럽게 풀이된다. 영산교단 측에 의하면 “지구의 세계 불교는 영산 당시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복원하고 정법을 널리 펼쳐 위대한 불교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기 위해 신불교를 주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계의 논쟁은 주로 수행방법의 정통성이나 돈오점수와 돈오돈수간의 논쟁과 같은 수행 방법론이나 ‘종관 대 유식’ 같은 철학적 문제 또는 무아설과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무아윤회라는 대전제 하에서 구제적 윤회주체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서, 불교의 교설을 뒤바꿀만한 것이나 불교의 본질에 속하는 새로운 실체를 드러낼만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아와 윤회주체 문제는 단결 논쟁 메뉴로서 불교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기존불교에서 2000년 이상 정설로 알고 믿어왔던 ‘무아설’이 허무아침에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무아 윤회설이 한 순간에 사실(那實)이 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실체개념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신불교’라고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자칫하면 천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불자들, 아니 3~4억명에 이르는 세계불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사안이다. 그렇다고 마냥 덮어 둘 수 만은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 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지사에서는 이 문제를 ①신불교에서 보는 기존 세계불교의 문제점 ②신불교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교설과 사상 ③신불교를 주장하는 큰스님의 실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영산 당시 가섭존자·아난존자,
부처님의 법맥 이어 받아 신불교 창립
금생애 불세존으로부터 붓다 인가 주장
실원한 법세계 놀라워

오늘날 세계불교는 동남아 중심의 남방불교와 한국·중국 등으로 전파된 북방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모두 자기들의 불교가 부처님의 가

르침을 이어받은 정통불교임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불교 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영산불교 교단은 기존의 세계 어느 불교도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지금 같이 왜곡되고 왜소화된 불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불교인 영산불교만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산 당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가섭존자의 후신이라고 하는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의 후신이라고 하는 자재만현 큰스님의 등장이다. 두 분 큰스님은 한국 땅에서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부처님으로부터 붓다의 인가를 받았다 고 한다. 《법화경》에 나와 있는 수기 내용과도 일치한다.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전동지할 대사건이고 전무후무한 대정사라 아니할 수 없다. 곁에 한 분 정도 나온다는 붓다가 한국 땅에서 두 분이냐 한꺼번에 출세했다고 하니 불자라 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두 분 큰스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적었다는 이 책의 내용은 누가 봐도 예상치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 붓다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붓다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많이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의 서문은 부처님께서 직접 대적정사에 중에 불러주신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 당당하게 불세존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보통 스님이 입두를 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이는 독자들이 읽어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불교는 三無佛敎. 부처님·
영혼체·완전해탈수행법 없어
즉,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이
신불교가 보는 기존불교의 왜곡된 실상

영산불교에 의하면 현재 세계불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구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인격적 실존을 믿지 않는 불교라는 것이다. 기껏해야 2600여년 전에 이미 열반하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은 육신 부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계시는 법신개념의 부처님만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없는 불교라는 것이다. 둘째, 지금의 세계불교는 잘못 해석한 무아설에 발목이 잡혀 윤회주체를 부정하고 영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那實)이라는 것이다. 셋째, 작금의 세계불교는 자력수행에만 매달려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수행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력수행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것도 지극히 어렵고 보살이나 붓다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세계불교는 부처님 없는 불교, 윤회주체인 영혼체 없는 불교, 완전한 생사해탈 수행법이 없는 불교이다. 즉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이 신불교가 보는 기존불교의 왜곡된 실상이다.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실존.. 불자들은 보신불을 믿어야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영산불교에서 주장하는 신불교의 교설을 한 번 정리해 보자. 첫째 부처님 실존관이다. 이것은 신불교에서 주장하는 제1의 사상이다. 영산불교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신다”고 선언하셨다. 불세존을 포함한 다보불·약사여래불·아미타불·보명불의 오여래부처님도 계시고, 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도 다 실재로 계신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큰스님께서 부처님을 친견하신 경험적인 이야

기이기도 하고 경전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사리불존자가 공(空)의 법을 증득하고 잠든 완전한 명도라 생각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잠든 명도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부처님이 되려면 천인과 아차와 용신들이 공경하는 32상(보신불)을 갖추고 완전한 잠 명도를 이루어야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인격적 부처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법화경 여래수랑품》에서는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수한 보살들을 길러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인격적 부처님의 실존을 말해주는 논거가 된다고 한다.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량 겁 전에 성불하신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다. 이것은 불교사, 나아가 종교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성불하신 이후 수많은 이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셔서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길러내시고 증생을 구제해 오셨는데, 가장 최근에 오신 것이 바로 2600여년 전 인도 땅에서의 일이라고 한다. 불교의 역사가 무량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이다. 신불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 부처님의 존재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 공과 100% 하나 되어 완전히 무화(無心)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실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불보살님을 길러내시고 증생을 구제하려면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신론(佛身論)에서 주장하는 부처님의 삼신(法身, 報身, 化身) 중 보신분이 바로 인격적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처님의 이론적 삼신론은 실존적 삼신관으로 대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엄경》은 여러 불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인격적 실체와 그 위신력을 찬탄하고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화경 여래신력품》에 나오는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

새로운 영혼체 윤회론 주장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아윤회론 폐기
무아는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
본체계의 진이까지 부정하면 큰 잘못

신불교의 두 번째 사상은 윤회주체인 영혼체 중심의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불교의 이 사상은 부처님 실존관 못지않게 핵폭탄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불교계가 2000년 이상 정설로 믿어왔던 무아설의 해석이 일순간 180도로 뒤집어지고, 무아윤회론이 한갓 휴지조각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신불교에서 바르게 해석한 무아설의 핵심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의미는 현상계에는 영원불변하는 ‘나의 실체’가 없다(無我)라는 것이다. 또는 오연으로 이루어진 현상계의 나는 영원 불변하는 ‘나의 실체’가 아니다(非我)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증생들이 너무 자기자신에 집착하여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집착을 때어주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깊은 삼매 중에 무아가 잘못 해석 되었다고 큰스님께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학자들이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인 무아의 개념을 본체계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절대무(絕對無)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본체계의 실체마저 부정하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로서의 나의 실체인 영혼체마저 없다고 함으로써 불교의 근간을 흔들고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말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 신불교 측에서 보는 입장이다. 본체계의 나의 실체인 영혼체가 없다면 불보살님의 실존도 근거를 잃어버리고, 구제받아 아함 증생의 실체도 없고, 열반하는 주체도 없고, 천도재를 지낼 이유도 없으며, 우주성

자를 내는 불교의 위대성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불교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힌두교에 밀려난 것도 바로 이 잘못 해석된 무아설 때문이고 오늘날 불교가 서구나 미주지역 등으로 세계화 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잘못 해석된 무아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왜곡된 무아설이 불교를 망친 주범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불교에서는 영혼체의 존재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천도시켜줌으로써 이론의 여지없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영혼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그러면서 본체계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 진아(眞我)의 존재는 대승의 《열반장》에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본체계의 실상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 불러오는 칭명염불
아니면 불보살 될 수 없어

신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사상은 자력기반·타력중심의 칭명염불 수행론이다. 신불교에 의하면 지금 세계불교의 수행방법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성과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윤회를 벗어나 자기의 분신을 가지는 완전한 생사해탈의 경지인 정도보살이 되거나 최고의 해탈경지이면서 불신을 갖는 붓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 보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장을 소멸시켜 영혼체를 보름달 같이 빛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력수행만으로는 이것이 지극히 어렵다. 특히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한살정리라는 업장소멸 절차가 필요하고, 병의 등 의미를 물리쳐야 하며, 4개의 영혼체를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여자인 경우 영체를 남자로 만들어야 하며, 정도에 자기 분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타력을 받는 칭명염불을 해야 한다. 칭명염불 중에서도 부처님 중의 부처님인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해야 된다. 칭명염불은 부처님 재세 시부터 있었던 수행법이고 모든 불보살들의 수행법이며, 많은 경전에 근거가 있는 수행법이다.”

신불교에서 말하는 칭명염불은 석가모니불을 칭명한다는 점과 열반시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금강경을 읽고 다라니를 한다는 점에 서정도주의염불수행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신불교 사상-불교학계·교계의
진지한 논의로 정법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신불교가 주장하는 세 가지 사상은 불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3대사상은 상호간 매우 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체계의 실체인 영혼체의 존재는 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부처님의 실존은 칭명염불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불교의 사상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 불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혼체 윤회론이라는 신불교의 주장은 영혼체를 부정하고 있는 기존의 불교학과 학계에, 나아가 종교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모든 진통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하고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진통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기존 불교계나 학계에서도 새로운 사상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과거의 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할 필요하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재만현 큰스님 인터뷰

● 왜곡된 무아설이 2천년이상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왔다 가셨고 달리오라마나 턱 낫한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도 생존해 계시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무아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체계의 실체인 영혼체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체 이론은 상품보살 정도의 범위에서 가아 어느 정도 실체를 알 수 있고, 붓다의 경지에 가사야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는 심오한 차원의 교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해도 무아설이나 영혼체 이론을 바르게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어떤 큰스님도 이런 경지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산불교에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의 이름으로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 잡고 영혼체 윤회론을 주장하여 정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큰스님께서 칭명염불하실 때의 경지나 체험이 궁금한데요?

수행경지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1) 귀가 찢켜떡 하고 닫히며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단계
- 2) 대낮같이 환해지며 현란한 빛의 입자를 보는 선정 단계
- 3) 시공을 초월한 저밀세계로 들어가 본성(공)을 보는 무아단계
 - 견성(화두타파)
- 4) 문수·보현보살님으로부터 자금색 정토 빛을 받는 단계 - 보살(8지)
- 5) 햇살 속보다 더 밝고 강렬하고 영롱한 무량 여중공을 보는 단계
 - 붓다의 관문

● 큰스님께서 친견하신다는 부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의 현신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키는 1m78cm, 몸무게는 80kg이고 60세 인पूर्모 보입니다. 항상 회색 장삼에 108쪽 팔각가사를 수하시고 깔끔하고 청정하시며, 머리는 언제나 백호를 친 채하고 잘 생긴 모습에 취합니다. 얼굴은 항상 자애로운 아버지상이고, 맑고 깨끗한 자태가 싱그러우며, 피부는 우유 빛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보입니다.

● 신불교의 수행덕목으로서 특히 효행을 중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불교에서는 신심, 효행, 청정계를, 자비이타행, 실천행 등을 중요한 수행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효행은 불교의 중심사상이며, 우주법 차원의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행은 매가신 후 지옥이나 축생의 몸으로 지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조상의 영혼을 구해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천도재입니다. 그리고 천도재는 반드시 부처님이 주관해야 천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사는 관음대교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효행사 포상을 통해서 효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 현지사는 호국평화불교를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현지사의 호국 평화불교는 과거의 호국불교와는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우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과 다보불탑을 조성하여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우주적 불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일과 국운융창, 나아가 인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산불교 - 자재만현 큰스님〉
30여 년간 수행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 친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1937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다. 1960년에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경봉스님 문하에서 화두참구의 참선수행을 통해 10여 년 만에 공성을 증득했다.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상임포교사로 활동했으며,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여러 선지식을 두루 찾아 구법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경전을 통해 더 높은 세계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과감하게 염불행자로 방향을 전환했다. 30여 년간 사력을 다해 수행한 결과 깊고 깊은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드디어 2000년에 《법화경》의 수기대로 불세존으로부터 불호 ‘산해해자재통발’로 붓다 인가를 받았다. 좌우보처는 상행보살과 정행보살이다. 현재 영산불교의 교조로 계신다. 저서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가 있다.



중생구제와 호국평화 위해 38선 이북에 설립한 신불교의 총본산
아난존자의 설법 시 불세존께서 입장 씻어주시는 붓다회상
절대계의 실제 부처님 모습대로 머리 깎고 눈 뜸 불상 모셔
금년 4월 초파일 사상 유례 없는 봉축 10만등 불사 봉행

현지사는 정법교교를 통한 중생구제와 호국평화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두 분 큰스님께서 2001년 5월에 창건한 정법도량으로서 38선 이북 춘천시 교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산불교의 총본산이다. 부신과 대전에 분원을 두고 있다. 현지사(顯濟寺)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란 의미로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한다. 춘천본사에는 부처님 본불(노사나불)을 모신 대웅보전과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 그리고 다보부처님을 모신 다보불탑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보명불·산왕불·차성광여래불을 모신 삼불보전이 있다. 현지사에 오시는 부처님들의

신불교의 총본산 - 영산불교 현지사

불상은 절대계에 계시는 본불의 모습대로 재현하여 세계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머리 깎고 눈 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년 사월 초파일 대웅보전 개원 시에는 불교사상 유례가 없는 10만등 봉축불사를 성공적으로 봉행한 바 있다. 또한 현지사는 호국평화와 중생구제를 위한 명상수련 지구촌의 2대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대적광전과 다보불탑을 조성해 놓고 있다.

현지사에는 불세존의 본불이신 노사나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시고, 오여래부처님, 준제보살님과 미륵부처님을 포함한 여러 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신다고 한다.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영산화상 이후 2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매월 2회의 붓다회상을 열고 있으며, 설법시에는 불세존께서 무량광으로 참석불자들의 입장을 씻어주시, 전국 각지에서 상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다고 한다.

■ 현지사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033-243-1795)